

# 안드레아 슬로민스키 Captivating Campaign

타데우스 로팍 잘츠부르크 빌라카스트  
2021년 8월 31일—10월 31일



## Thaddaeus Ropac

London Paris Salzburg Seoul



### Entsorgung

Das Vordermann-Plakat abtrennen und Kabelbinder entfernen. Das Plakat kann als Altpapier im Recyclinghof abgegeben werden. Hinweis: Manche Recyclinghöfe lassen sich die Rücknahme bezahlen, andere nicht. Daher: Vorher vergleichen lohnt sich!

Verstärkungsglaschen nach innen klappen



# 안드레아 슬로민스키

## Captivating Campaign

타데우스 로팍 잘츠부르크 빌라카스트  
2021년 8월 31일—10월 31일

오프닝: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5—8pm  
Mirabellplatz, 2,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덧’은 조형적인 면이나 문자 그대로의 의미 모두에 있어서 안드레아 슬로민스키의 작품세계를 정의하는 요소다. 슬로민스키의 신작들은 역사적인 연하장과 트럼프 카드로부터 가져온 모티프들을 포함하는데, 작가는 이를 편집하고 확대하여 독일 회사인 베가이스터너 왈캄프(Begeisternder Wahlkampf(열광적인 선거))로 전송, 포스터 시트로 제작한다. 과장되거나 심지어 충격적인 정치적 메시지로 의도된 선거 포스터에 감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일상 속의 숨겨진 시를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슬로민스키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엽서에서 나타나는 모티프들을 확장시키고 대형 화면으로 이동 및 구현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으나 출력된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근래 고품질을 보장하는 인쇄 기술의 발전은 작가에게 새로운 연작에 몰두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작가는 자신의 모티프를 순수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시적 용도로 의도된 소통의 매개를 재구성한다. 포스터를 아크릴 액자 뒤에 위치시키며 작가는 포스터의 가치를 높이고 관객과 작품 사이에 하나의 장벽을 만든다.

엽서로부터 가져온 모티프는 네덜란드의 풍속적이거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인테리어 속 일상 가운데에서 전통 복장 차림을 한 사람들이다. 20세기 초, 국가의 특징적인 묘사를 보여주는 일러스트가 포함된 그림엽서들은 소통의 매개체로써 뿐만 아니라 수집가들의 인기 품목이기도 하였다.

엽서들은 각 나라 또는 문화를 대표하는 정형화된 이미지를 제공하며, 수집가들로 하여금 세계를 구조화된 형태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였다. 슬로민스키의 작품에 사용된 모티프들은 함부르크 알토나 박물관의 엽서 아카이브와 더불어 작가 본인의 수집품으로부터 가져왔다. 작가는 마치 직소 퍼즐을 하듯이 발견된 물건들을 모으고 끼워 맞추며, 일종의 스크랩북처럼 현실에 대한 포괄적인 묘사를 담아낸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국경 지역인 니더작센 주의 메펜에서 태어난 작가에게 네덜란드로부터 기인한 이러한 일련의 모티프들이 친숙하다거나 낯설다라고 명확히 치부될 수 없다. 이렇듯 양국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슬로민스키는 네덜란드 삶의 방식을 현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가정적이면서도 동시에 색다르게 보이도록 하며 비범하고도 자극적인 작품으로 창조해낸다. 언뜻 보기에 목가적인 듯한 그의 풍경은 다양한 연상을 가능케 하지만, 실상 가까이서 바라보면 작가가 묘사하는 상투적인 장면들 속 과거에 대한 감상적 관점을 엿 볼 수 있다.

슬로민스키의 모든 작품들은 조형적인 측면에서 ‘덧’으로 보일 수 있는데, 작품 속 트럼프카드가 뒤집혀 있다는 사실에서도 일종의 기만적 요소가 발견된다. 작가는 카드의 실제 내용을 숨긴 채 관객과 숨바꼭질을 한다. 도상학적 관점에서 트럼프 카드는 종종 싸움과 파산,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도박의 유혹을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윌트와 진지함 사이를 오가는 이 전시는 슬로민스키가 창조한 세계로 관객을 초대하며, 관객이 그 안에서 스스로를 재정립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선사한다.

슬로민스키는 함부르크의 베를린예술대학교(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후 함부르크와 베르더를 오가며 거주하고 작업한다. 작가의 주요 개인전으로는 함부르크 미술관(Hamburger Kunsthalle, 1995, 1997), 베를린 구겐하임 미술관 (Deutsche Guggenheim, 1999),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 (Serpentine Galleries, 2005),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Museum für Moderne Kunst, 2006), 보이만스 반 뷔닝겐 미술관(Museum Bojmans Van Beuningen, 2007), 신베를린예술협회(Neuer Berliner Kunstverein, 2013 & 2014), 함부르크 다이히토어할레(Deichtorhallen Hamburg, 2016), 실케보르 요른 미술관(Museum Jorn, Silkeborg, 2017)등이 있다.

### **Press contact**

Dr. Patricia Schmiedlechner  
patricia.schmiedlechner@ropac.net  
T +43 662 881393